



## 정부·국회

### 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2.(목),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25년 5.2만 → '26년 9만<노동 4만, 산안 5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즉각적 제재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 노동·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해 사고 발생 이전 위험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감독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감독 수요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 [ ① 노동 분야 ]

1.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3대 분야」에 감독 역량 집중

우선 임금·근로시간·차별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①임금체불, ②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③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독을 확대·강화한다.

첫째, '숨어있는 체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체불 피해자의 신고사건 중심으로 처리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신고 사업장 대상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체불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1년간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 대상 감독 등을 통해 추가 체불 여부 확인

특히, 체불 전수조사 감독 이후 다시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등 체불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감독, 특별 감독을 순차로 실시하는 등 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금절도인 체불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인식을 확산한다.

둘째,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감독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연 400개소). 특히, '26년 추진 예정인 포괄 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 전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 추진하고,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중심 외국인 노동자 대상 법무부·지방정부 등 합동 감독 ▲대학가 편의점·카페 업종 중심 청년 노동자 대상 방학 기간 집중 감독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독도 신설·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임금 등의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지 중점 감독(연 200개소)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이 현장에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독 확대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하여,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자 중심 익명 제보 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제보 사업장 감독은 타 감독보다 법 위반 비율이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익명 제보 사업장 감독 법 위반율 85.8% vs 일반 감독 법 위반율 57%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다수 접수 사업장, ▲최근 급성장한 기업 등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감독도 강화하고,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신(新) 산업 분야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분야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의 노무관리 적정성에 대한 감독도 새롭게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 등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정부·국회

## 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 3. 체계적 사업장 관리 강화 및 감독결과 확산

체불 신고사건과 사업장 감독의 연계를 위해 '개인별 사건처리 중심'에서 '팀 단위 전담·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말 '근로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간 실시한 감독 유형, 규모, 결과 등을 공유하고, 특히, 감독 시 확인된 주요 법 위반 사례 및 인사노무관리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적극 확산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 2 산업안전 분야 ]

#### 1. 감독 인프라 확대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 인력·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대폭 증원('25년 895명 → '26년 2,095명)하면서,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70개 파트를 팀을 운영하고 파트를 2배 수준으로 증차('25년 146대 → '26년 286대)하여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갖추고, 전국 지방관서에 드론을 배치(총 50대)하여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지역·작업에 대한 입체적 관리를 강화한다.

#### 2.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적발 시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여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위주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폐지하고 일반 점검·감독 체계로 전환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점검·감독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또한,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했던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함으로써,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 3.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 마련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 개선을 유도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정보 전달 길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정·기술 지원 제공 및 계도를 우선 실시한다. 계도 및 기술·재정 지원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감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안전일터 지킴이 1천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초소형 건설현장 등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촘촘하게 지도한다.

반면,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전담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4. 노사 모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하도록 지도 강화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감독에 반영하고, 동시에 사업주와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 책임도 강조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시에는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현장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안전모·안전대·안전 띠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현장 전반의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노동과 산업 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통한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880](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880)

## 정부·국회

### [참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4)
-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중대산업재해수사과(044-202-8952)
-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7)
- ④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

####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sup>1)</sup>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sup>2)</sup>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 2)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현재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범위가 화재, 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된다. 또한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공소 제기 이후에는 공개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를 통해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2026년 8월 1일 시행)

앞으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이로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사업장의 산재 예방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실효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④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2026년 6월 1일 시행,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

사업장의 위험성평가<sup>1)</sup>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과태료<sup>2)</sup> 부과)를 받게 된다.

1) 사업장의 노사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을 벗어난다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

2) 위험성평가 미 실시(1천만원 이하),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500만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300만원 이하)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가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여 노사가 함께하는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908](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908)

## 정부·국회

###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공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기술지원규정(이하 ‘KOSHA GUIDE’) 총 437건을 정비·공표했다.

※ KOSHA GUIDE는 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KOSHA GUIDE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조치의 현장 적용을 위해 국내·외 안전보건 최신 기술 등을 반영한 기술적 권고 지침이다.

KOSHA GUIDE는 '95년 최초 도입된 이후 사업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안전보건 조치 시 참고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어왔다. 지난 '24년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KOSHA GUIDE의 정책 수요 반영과 체계성 강화를 위해 표준제정 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법령·정책의 변화와 산업현장의 요구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정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유사·중복 가이드는 통폐합하고,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과 현장의 사회적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그 결과 ▲고시인성 표시 기준(색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 ▲그레이팅(격자) 기준(공단 반복 사고 기획조사를 기반으로 발판 설치 방법을 제시), ▲정량적위험성평가 기준(QRA, 화재·폭발 영향범위를 제시), ▲외벽도장 보수공사 기준(떨어짐 사고 가능성이 높은 달비계 등에서 안전한 방법을 제시) 등 총 437건(제정 11건, 개정 164건, 폐지 262건)을 새롭게 재정비했다.

이번 정비로 KOSHA GUIDE는 1,039건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오래된 가이드를 정비하고 신산업 등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새로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기준의 제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KOSHA GUIDE는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계자가 위험 요인을 스스로 점검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마련하는데 널리 활용되는 실무 중심의 기술기준”이라며, “이번 가이드 정비가 법령과 현장을 더욱 긴밀히 연결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911](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911)

### 건설현장 ‘떨어짐’ 사고 막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특성에 맞춘 이원화된 산재예방 점검 및 지원에 들어간다.

올해 총원 730명 규모로 새롭게 출범하는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조직은 역할에 따라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 지킴이’가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반면, ‘지붕 지킴이’는 ‘떨어짐 사망사고 중 가장 위험한 ‘지붕 공사’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고강도 산재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붕 지킴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발굴형 순회 순찰’과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 두 가지 방식으로 순찰한다. ▲‘발굴형 순회 순찰’은 사전 착공 신고 없이 진행 중인 지붕 개·보수, 태양광 설치·해체 등의 위험 현장을 발굴하는 활동이다. 지킴이는 축사·산업단지 등을 누비며 위치 파악이 어려운 초소형 공사를 발굴한다.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은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나 위험작업 개선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즉시 개선하는 순찰 방식이다. 지킴이는 현장이 개선될 때까지 상주하며 위험을 제거한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올해 총 9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킴이가 찾아낸 위험 현장을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 사업’과 연계해 신속히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과 지붕을 소유·임차하여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떨어짐 예방 조치를 위해 지붕 채광창 안전 덮개 등 6개 안전품목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공단은 추락예방 시설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산업단지공단, 에너지공단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730명의 지킴이가 현장을 누비고 95억 원의 재정이 뒤를 받치는 소규모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이라며, “지킴이의 빈틈없는 순찰과 소규모 특화사업의 든든한 안전설비 지원을 통해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937](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937)

## 안전보건공단

### 주간 사망사고 속보

[1/16, 인천 미추홀구] 달기체인 용접부가 끊어져 낙하하는 변압기 부속품에 맞음  
 [1/17, 경기 수원시] 지반 누수 차단 작업 중 쓰러지는 벽체에 깔림  
 [1/20, 강원 강릉시] 벌목작업 중 벌도목에 걸려있던 나무가 쓰러지며 맞음  
 [1/21, 광주 북구] 수동 운반기구로 프레스 운반 중 넘어지는 프레스에 깔림  
 [1/23, 충남 논산시] 무너지는 톤백에 깔림  
 [1/26, 전남 화순군] 자동분쇄기의 작업발판에서 작업 중 떨어짐  
 [1/29, 충북 음성군] 적재물을 싣고 이동 중인 지게차에 부딪힘 [1/29, 전남 광양시] 배관 내부 가스에 질식  
 [1/27, 강원 삼척시] 고소작업대 위에서 떨어짐  
 [1/30, 경기 여주시] 적재기계에 끼임  
 [1/30, 부산 사하구] 지게차 마스트와 프레임 사이에 끼임  
 [2/3, 대구 달서구] 코일에 끼임

###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 현장에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확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27일 대전 동구 소재 성남동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공단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하는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현장 점검은 겨울철 한파 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시되었다.

이날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현장에서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쉼터 설치 및 휴식 부여, ▲따뜻한 물 제공, ▲추위가 덜한 시간으로 작업시간대 조정, ▲한랭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및 응급처치 등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폈다.

김현중 이사장은 "공단은 지난 12월부터 '안전이 가장 빠릅니다' 라는 신규 BI를 통해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BI처럼 안전을 중시하는 현장 문화를 만들어 주시고,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여 혹한기에도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notification/release/press-release?bbsId=820250214000108&pstNo=202601301834328CW6CR>

### '추락안전매트'로 노동자의 안전을 지원

한국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추락안전매트'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으로 적극 지원한다.

추락안전매트는 후진국형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고 추락 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산업재해예방 물품이다. 그동안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전용 추락안전매트가 없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방용·스포츠용 매트 등을 임시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단은 영국표준협회(BSI)의 공인 규격인 PAS 59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도입하는 현장을 지원한다.

※ [PAS 59] 영국표준협회(BSI)의 집단적 추락방지 소프트 랜딩 시스템(Collective fall arrest soft landing systems) 기준이며, 건설 현장 등에서 추락 시 충격을 완화하여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 시스템의 성능 및 시험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공단은 지난 2025년 12월 16일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규 품목 도입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PAS 59 기준을 만족하는 수입 제품을 도입하는 현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국내 개발 제품 또한 한국소방안전기술원의 인증 절차를 거친 후 품목에 도입될 예정이다. 공단은 추락안전매트를 현장에 도입하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2026년 3월 중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 등의 유해·위험한 요인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종 및 사업장 규모에 따른 지원 품목, 대상 등의 자세한 내용을 공단의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http://portal.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이번 추락안전매트 도입을 통해 낮은 높이에서의 떨어짐 사고 시 부상 정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notification/release/press-release?bbsId=820250214000108&pstNo=20260130183519LGG9K0>

## 안전보건공단

### 주간 사망사고 속보

[1/16, 인천 미추홀구] 달기체인 용접부가 끊어져 낙하하는 변압기 부속품에 맞음  
 [1/17, 경기 수원시] 지반 누수 차단 작업 중 쓰러지는 벽체에 깔림  
 [1/20, 강원 강릉시] 벌목작업 중 벌도목에 걸려있던 나무가 쓰러지며 맞음  
 [1/21, 광주 북구] 수동 운반기구로 프레스 운반 중 넘어지는 프레스에 깔림  
 [1/23, 충남 논산시] 무너지는 톤백에 깔림  
 [1/26, 전남 화순군] 자동분쇄기의 작업발판에서 작업 중 떨어짐  
 [1/29, 충북 음성군] 적재물을 싣고 이동 중인 지게차에 부딪힘 [1/29, 전남 광양시] 배관 내부 가스에 질식  
 [1/27, 강원 삼척시] 고소작업대 위에서 떨어짐  
 [1/30, 경기 여주시] 적재기계에 끼임  
 [1/30, 부산 사하구] 지게차 마스트와 프레임 사이에 끼임  
 [2/3, 대구 달서구] 코일에 끼임

###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 현장에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확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27일 대전 동구 소재 성남동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공단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하는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현장 점검은 겨울철 한파 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시되었다.

이날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현장에서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쉼터 설치 및 휴식 부여, ▲따뜻한 물 제공, ▲추위가 덜한 시간으로 작업시간대 조정, ▲한랭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및 응급처치 등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폈다.

김현중 이사장은 "공단은 지난 12월부터 '안전이 가장 빠릅니다' 라는 신규 BI를 통해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BI처럼 안전을 중시하는 현장 문화를 만들어 주시고,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여 혹한기에도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notification/release/press-release?bbsId=820250214000108&pstNo=202601301834328CW6CR>

### '추락안전매트'로 노동자의 안전을 지원

한국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추락안전매트'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으로 적극 지원한다.

추락안전매트는 후진국형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고 추락 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산업재해예방 물품이다. 그동안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전용 추락안전매트가 없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방용·스포츠용 매트 등을 임시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단은 영국표준협회(BSI)의 공인 규격인 PAS 59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도입하는 현장을 지원한다.

※ [PAS 59] 영국표준협회(BSI)의 집단적 추락방지 소프트 랜딩 시스템(Collective fall arrest soft landing systems) 기준이며, 건설 현장 등에서 추락 시 충격을 완화하여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 시스템의 성능 및 시험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공단은 지난 2025년 12월 16일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규 품목 도입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PAS 59 기준을 만족하는 수입 제품을 도입하는 현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국내 개발 제품 또한 한국소방안전기술원의 인증 절차를 거친 후 품목에 도입될 예정이다. 공단은 추락안전매트를 현장에 도입하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2026년 3월 중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 등의 유해·위험한 요인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종 및 사업장 규모에 따른 지원 품목, 대상 등의 자세한 내용을 공단의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http://portal.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이번 추락안전매트 도입을 통해 낮은 높이에서의 떨어짐 사고 시 부상 정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notification/release/press-release?bbsId=820250214000108&pstNo=20260130183519LGG9K0>

# 오이레터

## 2025년 직업병 안심센터가 주목한 주요 중독 사례 리포트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부른 삼불화인(PF3) 가스 누출

첫 번째는 대전충청 직업병안심센터에 보고된 사례입니다. 2025년 2월, 충청북도 소재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에어 밸브를 교체하던 중 삼불화인 가스가 누출되었습니다.

가스 감지기 경보가 울리자, 한 근로자가 경보를 빨리 끄기 위해 방독면 등 개인 보호구도 없이 해당 공간에 1~3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분 뒤, 이 근로자는 심한 현기증과 두통, 메스꺼움, 몸이 뜨거워지는 열감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삼불화인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무섭게 작용합니다. 일산화탄소처럼 혈액 속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 공급을 저해하는 동시에 세포수준에서는 미토콘드리아 호흡을 억제하여 전신 저산소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호흡기 점막에서 분해되어 불화수소(불산)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생겨난 불소 이온은 우리 몸의 칼슘을 급격히 떨어뜨려 심장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꼭 기억하세요! 삼불화인은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므로 호흡기노출을 중심으로 응급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반면, 불산은 끓는 점이 약 섭씨 19.5도 이므로 기체 또는 액체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불산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호흡기 노출 뿐만 아니라 피부노출 상황을 고려하여, 중화에 필수적인 칼슘 글루코네이트 겔(글루카겔)을 미리 비치하고, 사고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두 물질 모두 불소를 포함하지만 독성기전과 대응은 다릅니다.

인근 건설현장까지 위험한 수산화리튬(LiOH) 유출  
두 번째는 광주 직업병안심센터 사례입니다. 2024년 3월, 이차전지용 수산화리튬 생산 공장에서 배관 파손으로 약 50~100kg의 분진이 유출되어, 인근 건설 근로자 약 700여 명이 노출되어 긴급대피하고, 이 중 300명이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들은 목 따가움, 기침,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였고, 메타콜린 기관지 유발검사서서 7~23%의 양성률이 확인되어 급성 노출과 시간적·임상적 연관성을 보이는 기관지와 민성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청소 및 방제 작업 중 2차 노출이 더해져 피해가 더욱 확대된 사례입니다.

수산화리튬은 강알칼리성 물질로 호흡기 점막의 수분과 만나면 단백질을 녹이는 액화 괴사(liquefactive necrosis)를 일으킵니다. 이는 산성 물질보다 조직 깊숙이 침투하는 무서운 특성이 있습니다. 흡입된 분진은 기도에 염증을 일으켜 반응성 기도과민 증후군(RADS)을 유발하며,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유출 사업장뿐만 아니라 인근의 비관련 근로자에게도 광범위한 건강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출 시기와 강도에 따른 차별화된 추적 관찰과 지속적인 폐기능 검사가 필수적이며, 유소견자에게는 기관지 확장제 등 적극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측면에서는 설비 결함의 근본적 해결은 물론, 인근 작업자를 포함한 모든 잠재적 노출군에게 알칼리 분진에 특화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화학반응에 의해 발생한 삼수소화비소(AsH3) 중독 세 번째는 대구경북 직업병안심센터의 사례입니다. 2023년 12월 발생한 경북 소재 아연 제련공장에서 삼수소화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정용 표준용액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비소를 함유한 슬러지가 산성 용액과 반응하여 발생한 삼수소화비소(AsH3) 가스에 근로자 5명이 노출되었고, 이 중 1명이 노출 3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작업자들은 밀폐된 탱크 내부에서 장시간 작업 후 복통과 혈뇨를 호소하였으며, 혈액검사 결과 급격한 용혈 반응과 함께 신장 수치(BUN/Cr)가 상승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삼수소화비소는 색과 냄새가 거의 없어 개인 감각에 의한 인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전 위험성 평가와 공기 측정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가스입니다. 호흡기로 들어온 가스는 적혈구를 파괴(용혈)하여 급격한 빈혈과 혈뇨를 일으킵니다. 이때 깨진 적혈구 찌꺼기가 신장 세뇨관을 막아 급성 신부전을 유발하며, 산소 운반 능력 저하와 비소 독성이 겹쳐 다장기 손상으로 이어져 단기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 홍보가 필요합니다! : 응급실은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입니다. 삼수소화비소 중독 환자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의료진은 바로 응급실 의료진입니다. 급성 중독에 대한 치료는 속도가 생명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중증 용혈이나 신부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장내과 협진 하에 조기 투석을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응급실 의료진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의 신속한 협진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응급실 의료진이 내원 환자의 증상을 보고 직업성 질환의 가능성을 즉각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 직업병안심센터는 응급의학회와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응급의료를 대상으로 센터를 알리고 직업병 인식을 높이는 홍보 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165>